

# 전남대학교 청소년철학교실

## 2017년 가을학기 개강안내

전남대학교 <청소년철학교실>은 자기 자신, 세계와 인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을 구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배움과 소통, 그리고 토론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 명	요일/시간	형식	강사
1쪽지 고등부	믿음의 이면(2) 자기 없는 자기공정	9월 18일 개강 매주 월요일 저녁 7:20 ~ 9:20	읽기, 토론 및 강의	백송이 (철학과 박사수료)
2쪽지 고등부	우리의 생각과 논리적 사고	9월 19일 개강 매주 화요일 저녁 7:30 ~ 9:30	강의, 조별토의	김성부 (철학과 박사수료)
3쪽지 중고등부	나는 자유로운가?	9월 20일 개강 매주 수요일 저녁 7:00~9:00	토론 및 강의	이한나 (철학과 석사수료)
4쪽지 고등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9월 21일 개강 매주 목요일 저녁 7:00~9:00	읽기, 강의, 토론	손홍국 (철학과 박사수료)

### 신청정보

신청기간 : 2017년 8월 21일 ~ 9월 20일  
 강의기간 : 2017년 9월 18일 ~ 11월 7일  
 수강료 : 쪽지 당 8만원  
 문의 : [youthphilo@hanmail.net](mailto:youthphilo@hanmail.net)  
 010-9884-0166 (백송이)

### 신청방법

- ①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youthphilo@hanmail.net](mailto:youthphilo@hanmail.net)로 송부
- ② 신청확인 안내메일 확인
- ③ 신청확인 안내메일에 기재된 계좌로 강의료 입금

\* 강의 장소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2층 210호 강의실

\* 다음 카페\_ <http://cafe.daum.net/youthphilo> (전남대 철학교실 또는 청소년 철학교실 검색)

 [twitter.com/youthphilo](https://twitter.com/youthphilo)

##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 믿음의 이면 : 자기 없는 자기긍정

많은 학생 수만큼이나 그들이 꿈꾸는 미래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위해서 지금 그들이 하는 것은 똑같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모두에게 자신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특별해지기 위해 노력해보지만,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분 탓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더 나은 삶을 위한 지금의 노력이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올바른 방향인지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강의는 그런 반성을 준비하기 위한 몇 가지 예비 사례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수업에서는 일상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한 부조화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모순된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어우러져 일상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볼 것입니다.

- 일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 ~ 9시 20분
- 강의기간 : 2017년 9월 18일 ~ 10월 30일 (6회)
- 장소: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210호실
- 진행: 백송이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사수료)
- 교재: 매 수업 시 수업자료 배부함.
- 수강대상: 17~19세 청소년

\* 수강인원 : 15명 내외, 수강인원이 8명 미만 시 폐강됩니다.

\* 사정에 따라 강의 회수가 축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축소 운영 시에는 강의료의 일부를 환불해드립니다.

회차	날짜	세부내용	비고
1	9월 18일	투블럭과 빨간 립스틱 - 유행과 개성의 조화	읽기 및 강의와 토론
2	9월 25일	‘인간현수막’과 ‘건물주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3	10월 2일	여성도 여성이기 힘든 사회	
4	10월 16일	BLACK VS WHITE - 인종혐오	
5	10월 23일	학생도 학생의 편이 아니다	
6	10월 30일	하면 되나? 자기 없는 자기 긍정	

\* 추후 일정 및 내용은 수업 진행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 우리의 생각과 논리적 사고

우리의 생각은 종잡을 수 없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생각은 어떤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사유하는 포괄적인 모든 사유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 중에는 논리에 의지한 사고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당면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판단하기도 하지만, 때론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두 생각은 경험적으로 인간의 당연한 사유 방식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사고의 방식은 각기 다른 국면에서 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수학적 문제를 풀 때는 논리적 사고가 감정적인 생각보다 더 유용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사유의 방식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의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생각을 개인의 사적인 영역과 학문의 공적인 영역으로 구분해 보고, 특히 공적인 영역에서 유용하다고 보이는 논리적 사고를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강의를 주로 참여자들의 토의와 발표 등으로 진행되고, 때로는 강의와 글쓰기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강의기간 : 2017년 9월 19일 ~ 11월 7일 (6회)
- 장소: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210호실
- 진행: 김성부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사수료)
- 수강대상: 17~19세 청소년
- 교재: 매 수업 시 수업자료 배부함.

\* 수강인원 : 15명 내외, 수강인원이 8명 미만 시 폐강됩니다.

\* 사정에 따라 강의 회수가 축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축소 운영 시에는 강의료의 일부를 환불해드립니다.

회차	날짜	세부내용	비고
1	9월 19일	생각이란 무엇인가?	강의, 조별 토의
2	9월 26일	변화하는 철학의 개념과 상대주의적 관점	강의, 조별 토의
3	10월 10일	객관적 체계로서의 전통적 논리학	강의, 조별 토의
4	10월 24일	사적인 영역의 논리와 감정적 설득력	강의, 조별 토의
5	10월 31일	공적인 영역의 논리와 논리적 설득력	강의, 조별 토의
6	11월 7일	공적영역의 논증과 오류	강의, 조별 토의

\* 추후 일정 및 내용은 수업 진행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 나는 자유로운가?

나는 자유로운가? 나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스스로를 선택해왔는가? 나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고, 내가 원해서 그 시기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여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다. 이런 이유들 말고도 요즘의 과학 연구들은 우리의 자유를 의심하게 한다. 뇌과학자들이나 진화생물학자들은 여러 실험 결과를 들며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으며,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는 환상을 진화시켜왔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유가 없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해야하는 것일까? 그렇게 되면 '나'로서의 삶은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자유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고찰해보고 과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자유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일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00분 ~ 9시 00분
- 강의기간 : 2017년 9월 20일 ~ 11월 1일
- 장소: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210호실
- 진행: 이한나 (전남대학교 철학과 석사수료)
- 수강대상: 중·고등학생
- 교재: 매 수업 시 수업자료 배부함.

\* 수강인원 : 수강인원 15명 내외, 수강인원이 8명 미만 시 폐강됩니다.

\* 사정에 따라 강의 회수가 축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축소 운영 시에는 강의료의 일부를 환불해드립니다.

회차	날짜	세부내용	비고
1	9월 20일	자유에 대한 단상	토론
2	9월 27일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어 있다 1	토론 및 강의
3	10월 11일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어 있다 2	
4	10월 18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1	
5	10월 25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2	
6	11월 1일	마무리 정리 - 자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 -	

\* 추후 일정 및 내용은 수업 진행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인간의 철학적 사유는 의아하게 생각함(thaumazein)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론적인 개념적 사유를 거쳐 실천적 사유로 건너간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의 물음은 인간 정신이 뿌리내리고 있는 공통적인 최종적 물음과도 같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물음에 답하려고 고민해왔다. 본 강의는 이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에 관한 토론과 숙고를 몇몇의 철학 고전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 일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00분 ~ 9시 00분
- 강의기간 : 2017년 9월 21일 ~ 11월 2일
- 장소: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210호실
- 진행: 손흥국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사수료)
- 수강대상: 17~19세 청소년
- 교재: 매 수업 시 수업자료 배부함.

\* 수강인원 : 수강인원 15명 내외, 수강인원이 8명 미만 시 폐강됩니다.

\* 사정에 따라 강의 회수가 축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축소 운영 시에는 강의료의 일부를 환불해드립니다.

회차	날짜	세부내용	비고
1	9월 21일	철학의 가치	읽기/강의/토론
2	9월 28일	좋은 아이디어 <플라톤 『국가』 7권>	
3	10월 12일	행복을 찾아서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 8장>	
4	10월 19일	도덕적 삶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2절>	
5	10월 26일	행복의 조건 <칸트 『순수이성비판』 방법론 2장>	
6	11월 2일	삶의 정치성 <칸트 『영구평화론』 부록>	

\* 추후 일정 및 내용은 수업 진행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 전남대학교 청소년 철학교실

## 1. 청소년 철학교실의 탄생 배경

청소년 철학교실은 2005년 여름부터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빛고을 철학교실>로 출발하였습니다. 이 빛고을 철학교실은 <교사를 위한 윤리학>과 <청소년 철학교실>, <기초 라틴어 강좌>, <기초 희랍어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2006년 전남대학교 철학과가 정부의 BK21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함으로써 더욱 활성화 되었습니다. <빛고을 철학교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철학교실>과 시민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인문강좌>로 세분화되었고, 현재 청소년 철학교실은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과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의 주관으로 각 계절마다 (1년 4학기) 다양한 주제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 2. 청소년 철학교실의 운영 목적

중·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의 의미나 인생의 목적에 대해 성인들 못지않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기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대학을 가야 하는지’, 혹은 ‘왜 살아야 하는지’ 등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쟁 위주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묻고 대답해볼 기회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전남대 <청소년 철학교실>에서는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좁게는 자기 자신에 대해, 넓게는 세계와 인간,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배움과 소통, 그리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3. 청소년철학교실 외부강의 운영안내

인문학 교육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광주 시내/전남지역 고등학교에서도 청소년 철학교실 개설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 청소년 철학교실은 광주 시내/전남지역 고등학교와 협약 하에 강사가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출장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의를 1꼭지 당 8회(주 1회, 2시간)로 이루어지며, 원활한 토론을 위해 참여자는 20명 내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단, 기획 의도나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과 운영방식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철학교실 출장 강의를 지난 2016년 광주·전남지역의 16여개 고등학교에서 28개 분반의 강의를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외부 출강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youthphilo@hanmail.net